

고등학교 일본어교육에 있어서의 문학수업 방법론

- 나쓰메 소세키(夏目漱石)의 「붓짱(坊っちゃん)」을 중심으로 -

이 경 목*

차례

1. 들어가며
 - 1.1.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2. 문학수업의 실례(實例)
 - 2.1. 작품 선정
 - 2.2. 실제작품을 통한 문학수업의 실례(實例)
 - 2.3. 문학수업의 평가
3. 마치면서

1. 들어가며

1.1.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그 목표를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쉬운 일본어를 이해하고, 쉬운 일본어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기초적인 능력을 기른다. 일본어의 말하기 능력의 신장과 일본어에 의한 정보검색에 적극적이며, 일본인의 일상 언어생활과 문화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깊게 하여 일본인과의 의사소통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태도를 기른다’로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일본어 교육현장에서는 일본어교육이 회화수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속에서 일본문화에 대한 학습을 첨가하고자 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문학수업을 수업자료로 활용할 때도 학습자의 이문화(異文化)에 대한 관심과 이해에 유익하다고 보고 이에 문학수업의 한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나쓰메 소세키(夏目漱石)의 「붓짱(坊っちゃん)」의 문학수업 실례(實例)를 통해 현재 고등학교의 일본어 수업시간에 활용할 수 있는 문학교육 방안을 제

*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일어교육 전공

시하고, 궁극적으로는 문학수업을 통해 일본문화, 일본인의 가치관, 미의식, 생활규범 등을 학습자들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이해하게 하며 일본인과의 의사소통(화제)에 있어 윤희유 역할을 피하려고 하는 것이다. 나아가 본 연구에서 얻은 결과를 토대로 다른 문학 작품에도 응용하여 학습자 중심의 문학교육·문학감상을 통하여 일본에 관한 관심을 고취시키고자 한다.

일본어 교사를 대상으로 <고등학교 일본어 문학교육의 실태 및 문학수업에 관한 의식 조사>를 한 결과, 교사들은 문학교육의 필요성과 교과서 내에 문학작품 수록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시중에서 일본어 수업시간에 활용할 수 있는 문학교재를 구입할 수 있다면 구입의사가 있다는 대답이 훨씬 많았다. 그리고 문학수업의 도입단계로는 중급 이수가 많았으나, 번역본을 사용한다면 학습자의 수준이 충분히 이해 가능하므로 입문/초기에 도입도 가능하다고 나왔다. 그 외에 대부분의 교사가 문학수업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1)회화수업을 위주로 하고 있고 (2)교과서 진도를 맞춰 나가는 것만으로도 배당된 수업시수가 빠듯할 뿐만 아니라 (3)수업에 활용할 미땅한 문학교재가 없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현장의 일본어 교사들은 회화수업과 아울러 문학수업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일본어 교육 연구자는 문학수업을 위한 교재의 연구와 개발에 힘쓸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다음으로 제6차 및 제7차 교육과정에 따른 검정교과서 「일본어 I·II」 내에 문학작품은 제6·7차 모두 「일본어II」에 치중되어 있다. 1년에 걸쳐 수업이 진행되고, 설사 1학년 때 배워도 2학년 때는 과목명을 달리하는 등 일본어에 배당된 수업시수와 진도상황을 볼 때 「일본어II」까지 학습이 진행되는 경우는 거의 없으므로 사실상 수업시간에 문학수업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볼 수 있다. 또한 2002년부터 고등학교에서 제7차 교육과정이 시행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주)블랙박스 교과서에만 하이쿠(俳句) 1편이 속표지에 실려 있을 뿐이다.

이처럼 현재의 교과서 편집은 회화중심의 수업을 통해 일본어의 배경이 되는 문화를 학습하거나 문화단락을 두어 그것을 읽음으로써 학습하고자 한다. 그러나 일본인의 일상생활과 문화에 대한 관심은 문학작품 감상을 통해서도 효율적으로 함양될 수 있다고 본다. 제7차 교육과정에서 창의력과 학습의욕 고취를 언급하고 있고, 문학은 그것을 체험(읽기)함으로서 문학 그 자체의 감상력과 창작력을 기르는 만큼 이에 교과서의 회화만을

중심으로 하는 수업에서 벗어나 문학수업이라는 새로운 방식을 통해 학습의욕 고취와 창의력 신장을 기할 수 있기에 문학수업은 필요하다 하겠다.

2. 문학수업의 실례(實例)

2.1. 작품 선정

문학교육을 통한 일본어학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재 선택일 것이다. 본고에서는 나쓰메 소세키(夏目漱石)의 「봇짱(坊っちゃん)」을 교재로 선택하여 문학을 통한 일본어교육을 시도해 보고자 했다. 「봇짱(坊っちゃん)」은 장편소설이고 한자가 많아 학습자로부터 흥미를 빼앗기 쉬우므로 제한된 수업시간에 감상하기에는 부적합하다 할 수 있다. 그러나, 그의 초기 작품인 「봇짱(坊っちゃん)」은 유일하게 어린이도 쉽게 접할 수 있는 흥미로운 내용이다. 때문에 장편소설임에도 학습자를 지치게 만들지 않고 재밌게 수업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그리고, ‘봇짱’의 초등학교 시절부터 취업할 때까지를 다룬 성장소설로 특히 중·고등학교 시절의 주인공의 모습이 생생하게 그려져 있어 학습자가 고등학생임을 감안할 때 인지적·정의적 발달특성에도 부합된다고 보아 교재로 선택했다.

제한된 수업시간과 원문교재가 학습자의 수준에 비해 지나치게 높다는 점 그리고 장편소설이라는 제약은 과제물, 학습자의 수준에 맞게 편집된 출판물과 번역물 이용 등으로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번역물은 학습자로 하여금 일본어 공부에 대한 동기 및 흥미를 유발할 수 있고, 일본문화 이해를 쉽게 한다. 문학작품을 통한 일본어 교육은 다양한 장(場:scene)에서 이루어지는 일상적 일본어에 자연스럽게 접근할 수 있게 해주며 동시에 무의식중에 그 나라의 문화에 접하게 하는 장점이 있다. 외국 문학 번역은 단순한 언어의 번역이 아니고 이문화(異文化)에 대한 번역인 것이다.

「봇짱(坊っちゃん)」을 교재로 선택한 또 다른 이유는 이 작품이 지니는 대중적 인기이다. 나쓰메 소세키(夏目漱石)의 「봇짱(坊っちゃん)」은 우리나라와 일본에서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일반인까지 다양한 독자층(학습자)을 가지고 있으며, 일본에서 발표되는 신문사 베스트셀러 순위에 지금도 올라있다.¹⁾ 또한 ‘서울대가 추천한 고전 200선’에 선정되기도 했으며, 우리나라와 일본에서 계속해서 번역 및 발행되고 있는 대중성이 풍부한 작품이다. 「봇짱(坊っちゃん)」은 대중성과 문학성 그리고 오락성을 골고루 갖추고 있어 일본

어 학습지뿐만 아니라 누구든 한 번쯤 읽어보아야 할 작품이기에 문학수업의 교재로 채택하였다.

2.2. 실제작품을 통한 문학수업의 실례(實例)

학교별로 일본어 과목에 배당된 단위수는 다르지만, 학기제의 경우 2단위 15주씩 계산하면 30시간이고 1년이면 60시간이 된다. 「일본어 I」 교과서를 약 10과로 보고 5차시씩 계획한다면 50시간이면 교과서의 진도는 10시간이 남는다. 그러므로 효과적으로 문학수업을 계획한다면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또한, 특기적성, 동아리활동, 클럽활동 등을 활용할 수도 있겠다.

우선 차시별로 학습지도안을 계획하여 정리해 둔다.

<표 1> 차시별 학습지도 계획안

차시	학 습 목 표	학 습 활 동	지도시 유의점	준비물		시간 (분)
				교사	학생	
1 / 5	◎각자에게 할당된 내용(소제목별)을 정독한다.	①편(6編)별로 조(6개조)를 구성한다. ②각 조의 구성원은 소제목별로 내용을 배분한다. ③주요 등장인물을 간략히 소개한다. ④작품을 감상한다.	◎각 조의 구성원 수를 균등하게 만든다. ◎각자 역할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시킨다.	◎「붓짱」 ◎조편성지	◎「붓짱」번역본	50
2 / 5	◎소제목별 내용을 구성원에게 이야기할 수 있다.	①소제목별로 숙지한 내용을 조구성원에게 각자 이야기한다.	◎구성원은 이야기를 청취하며 줄거리를 메모하도록 한다.	◎「붓짱」 ◎평가지	◎「붓짱」번역본	50
3 / 5	◎버즈학습조로 구성하여, 각 편(編)의 내용을 구성원에게 이야기할 수 있다	①지그소우 학습 형태로 조를 재구성한다. ②재구성된 조의 구성원에게 각 편별 내용을 이야기한다.	◎상대방 구성원의 설명을 귀담아 듣도록 주의시킨다. ◎교사는 교실을 순회하며 질문을 받는다(단, 문화, 단어설명에 대해서만 응답하고,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한다). ◎학습자의 청취 및 토론태도에 대해 평가한다.	◎「붓짱」 ◎버즈학습 조편성지 ◎평가지	◎「붓짱」번역본	50

4 / 5	◎작가에 대해 간단히 설명할 수 있다. ◎「붓짱」의 내용에 대해 토론 및 발표할 수 있다.	①작가와 작품의 관련성에 대해 학습한다. ②제시된 질문에 대해 조별 의견을 모아본다. ③조별 의견을 발표한다.	◎학습자가 전체 내용을 파악하고 있는가와 토론·청취태도를 평가한다. ◎감상내용에 대해서는 평가하지 않는다. ◎진지한 자세로 임하도록 한다.	◎「붓짱」 ◎작가연표 인쇄물 ◎조별감상지 ◎평가지	◎「붓짱」 번역본	50
5 / 5	◎자신의 감상을 쓰고, 친구의 감상에 대해 코멘트 해 줄 수 있다.	①배부된 감상지에 자신의 감상을 써본다. ②친구의 감상내용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제시한다.	◎1번 학생의 감상문에 대해 2번과 3번 학생이 평(評)한다. ◎진지한 자세로 임하도록 한다.	◎「붓짱」 ◎개별감상지	◎「붓짱」 번역본	50

1차시(조 편성 및 소재목별 정독)에서는 동기유발, 학습자의 학습의욕 조성 그리고 각자가 자기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또한 교사는 앞으로 문학수업의 진행방법을 차시별로 간략히 소개하고 조 편성에 있어 나중에 구성될 ‘버즈 구성원’의 중요성을 설명하여 조(組)가 서먹서먹한 관계가 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한다. 2차시(소재목별 내용을 구성원에게 이야기 및 한 편의 내용 완성)와 3차시(지그소우 학습 형태로 조(組)재구성 및 각 편의 내용을 이야기하여 전체 내용 완성)에서는 활발하되 소란스럽지 않는 수업 분위기 조성으로 이야기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며, 만약 이야기가 마무리 되지 못한 조가 발생시에는 1차시를 더 늘리도록 한다. 4차시(작가에 대한 학습과 전체 내용에 대한 조별 토론 및 발표)에서 작가에 대한 학습은 유인물을 이용하며 간단히 10분 정도로 정리하고, 조별토론 시간을 많이 확보하도록 한다. 그리고 발표는 조당 1~2분 정도로 한다. 5차시(개별 감상문 쓰기 및 동료의 의견 들어보기)에서 개별 감상문을 쓰는데 충분한 시간을 제공한다. 「일본문화에 대해 알게 된 것을 써보자」²⁾의 내용은 「붓짱(坊っちゃん)」뿐 아니라 5차시의 일본 문학수업 전체를 통해 안 것을 쓰도록 유도한다.

2.2.1. 내용 학습

본 연구는 어디까지나 한정된 수업시수로 학습자 중심의 효율적인 내용학습에 주안을 두고 있다. 그러므로 학습 방법에 있어 교사의 간섭을 최대한 배제시키는 버즈학습³⁾과 조(組)편성에 있어 지그소우학습⁴⁾ 형태를 취한다. 즉, 조 편성에 있어 한 개조의 각 구성원

이 한 개의 소재목별로 작품을 감상한 후 서로 이야기 해주는 버즈학습과 각 조별로 한 편씩 감상이 끝나면, 다시 지그소우학습 형태로 구성원을 재편성 한다. 재편성된 조는 1 편부터 6편까지 모이게 되고, 각자 버즈학습형태로 이야기 해 감으로써 모든 구성원이 전체 내용을 알 수 있게 된다.

교사는 조 편성에만 관여하고, 내용에 대해서는 1차시에서 주요 등장인물의 소개 시 간략히 언급하는 정도로 그쳐 학습자 스스로 전체 줄거리를 알아가도록 하는 학생 중심 수업이 되도록 한다. 수시로 교실을 순회하며 문화 혹은 단어설명을 요구하는 질문에 관해서만 간단히 설명한다. 평가는 학습자의 청취 및 토론 태도를 평가하되, 불성실한 학습자가 있을 시는 본인에게 알리고 감점처리를 한다.

<실례 1> 조 편성지

조	편(編)제목	소재목	조 구성원 (반번호, 이름)	버즈 구성원 (반번호, 이름)
1 조	제1편 개구쟁이 시절	장난꾸러기 박선영 하녀<기요> 김민하 독립 신년미 졸업 김보라	20315 김보라 20316 김민하 20321 박선영 20323 신년미	제1편: 신년미 20323 제2편: 장선숙 20312 제3편: 김대용 20302 제4편: 안은정 20324 제5편: 이은숙 20305 제6편: 장현정 20330 제()편:
2 조	제2편 선생님이 된 도련님	시코쿠(四国)의 중학교 인사하는 자리 첫 수업 골동품 강매 덴푸라(튀김) 선생님	이영환 20306 정지연 20313 이원희 20308 박승민 20302 장현정 20312	제1편: 박희민 20321 제2편: 이원희 20308 제3편: 이인석 20309 제4편: 김지연 20311 제5편: 김기보 20301 제6편: 권장아 20314 제()편:
3 조	제3편 한심한 학생들	속직 메뚜기 사건 함성사건 낙시 놀이 협단군 빨강셔츠	김대용 2번 이인석 9번 임대호 11번 김혜진 19번 이민영 27번	제1편: 김보라 20315 제2편: 정지연 20313 제3편: 임대호 20311 제4편: 윤지혜 20326 제5편: 이민숙 20332 제6편: 이호나 20328 제()편:
4 조	제4편 교무실	옛돼지와의 싸움 교직원 회의 이사하기 하숙집 할말 <기요>가 보낸 편지 윤전에 가다 승급(昇給)	20317 김기보 20318 김민하 20324 안은정 20326 윤지혜 20330 정지연 20311, 20331 20318, 20324, 20326	제1편: 김민하 20314 제2편: 이영환 20306 제3편: 김혜진 20319 제4편: 김민하 20318 제5편: 박혜규 20322 제6편: 이지혜 20329 제()편:
5 조	제5편 가엾은 선생님	꿀물 선생의 전근 이야기 빨강셔츠를 찾아가다 옛돼지와의 화해 꿀물 선생의 송별 모임 승전 기념일 스키야키(전골) 여출	32번 이민숙 5번 이두승 1번 김기보 22번 박혜규 27번 박희민 20번 박미란 20번 박미란	제1편: 박선영 20321 제2편: 박희민 20321 제3편: 이민정 20327 제4편: 정지연 20331 제5편: 박미란 20320 제6편: 윤은정 20325 제()편:
6 조	제6편 난폭한 도련님!	중학교와 사범학교의 싸움 신문기사 옛돼지, 사적하다. 빨강셔츠 흔내 주다 귀경	우효정 권진나 이호나 이지혜 장현정	제1편: 제2편: 제3편: 제4편: 제5편: 제6편: 제()편:

위 조 편성지에서 ‘조 구성원’은 소제목별로 감상하고, ‘버즈 구성원’은 한 편씩 감상하게 된다. 조 편성에 있어 ‘조 구성원’에서 가능한 한 각 조별 인원수를 균등하게 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실례 1>의 경우 학급 인원이 29명(특수학급 학생 3명 제외)으로 비교적 적은 반으로 ‘조 구성원’에서 1조에 4명, 그 외에 5명씩 짜여있다. 따라서 ‘버즈 구성원’은 6명씩(1편~6편) 4개조가 편성이 되었고, 나머지 1개조의 모자리는 1편에 대해서는 교사가 그 역할을 대신하였다. 그리고 학급 인원이 39명으로 많았던 A학급의 경우는 ‘조 구성원’에서 소제목 분량이 적은 1·2·6조에 6명씩을, 분량이 많은 3·4·5조에 7명씩을 구성하였다. ‘버즈 구성원’은 총 6개조로 구성하되, 3개조에는 3·4·5편이 두 명씩 들어가게 된다.

1/5차시에서 조 편성 후 학습자의 이해를 돕기위해 주요 등장인물을 소개하였고, 4/5차시의 조별감상에 앞서 작가에 대해 학습하였다. 인쇄물을 배부하여 일괄 강의식 학습으로 진행하며, 작품의 배경을 중심으로 작가에 대한 설명을 해 나가고, 일본 문화(예: 연호사용, 메이지유신 등)에 관한 설명도 겸한다.

2.2.2. 감상 발표 및 평가

감상발표는 내용학습이 얼마나 잘 이루어 졌는가를 척도할 수 있는 것이고, 학습자로부터 제출받은 감상문은 평가를 하는데 용이한 결과물인 만큼 아주 중요하다고 하겠다. 본 수업에서 감상발표는 크게 교사로부터 제시된 질문에 대해 조별 토론하는 방식과 개인별 감상문을 쓰는 두 가지 방법을 취했다. 4차시에서 교사로부터 제시된 질문에 따라 조별토론 및 발표하는 시간을 갖고, 5차시에서 개인별 감상문을 쓰기 및 그것에 대해 동료의 의견을 받아본다.

<실례 2> 조별 감상지(전면)

4주. 김선하, 박혜진, 이명철, 김원순, 김~~희~~혜진, 이지혜
발표자

♣ 조 별 감 상 ♣

Q1>도련님의 성격을 알 수 있는 사건이나 대목을 이야기해 보자.

- ☞ 어렸을 때부터 난폭하고 무모한 것을 알았다. (칼로 손고, 2층에서 떨어지고, 당근밭에서 씨름 등. 형태등)
- ☞ 사범학교와 중학교와의 싸움에서 자신이 나서서 맞힘. (장기말 던지는 등등..)
- ☞ 끝물 선생님의 전근으로 인해 슬픔 제의가 들어온 것을 거절.
- ☞
- ☞

Q2>옛돼지와 왜 사이가 나빠졌고, 다시 화해할 수 있었나요?

- ☞ 여관 주인이 뱃장에게 골품품 사길 요구했으나 안사서 옛돼지에게 이간질 함.
- ☞ 그래서 여관주인이 옛돼지에게 뱃장을 여관에서 내보내라고 해서 옛돼지는 뱃장에게 여관에서 나가라고 했음. 그리하여 나중에 ~~옛~~ 옛돼지가 여관 주인이 이간질 시킨 걸 알고 뱃장에게 사과함.

Q3>빨강셔츠나 알랑쇠의 성격을 알 수 있는 사건이나 대목을 이야기해 보자.

- ☞ 3편에서 빨강셔츠, 알랑쇠, 뱃장 셋이 뉘치살이를 갔는데 뱃장이 뉘치가 길러
- ☞ 뱃머리에 누워 있을 때 빨강셔츠와 알랑쇠가 뱃장이 둘러지 앓을 정도로
- ☞ 조개씨를 감 (던푸리라는 등... 선동해치라는 등... 메뚜기라는 등...)
- ☞ 뱃장에게 경단 가게에 가지 못하게 고강에게 알려놓고 자신은 드님(기생마 놀아남)
- ☞ 끝물 선생님의 전근은 강요함.

Q4>도련님이 왜 빨강셔츠의 승급제의를 거절했나요?

- ☞ 끝물 선생님의 전근을 빨강셔츠가 강요를 해놓고 끝물 선생님이 원해서 왔다고 거짓말을 함. 그리하여 끝물 선생님의 후임 선생님의 월급을 작게 권고 그 내지를 뱃장에게 주겠다고 하자 뱃장이 거절함.

<실례 3> 조별 감상지(후면)

Q5> 끝물호박, 빨강셔츠, 마돈나의 관계는?

☞ 끝물 호박과 마돈나가 사랑함.

끝물 호박이 망향자 마돈나가 빨강셔츠의 돈을 보고
넘어감.

발표1> 내가 마돈나라면 누구를 선택할까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빨강 셔츠

이유: 그 상황이 되면 누구라도 돈을 우선시할 것 같기 때문에..

발표2> 내가 도련님이나 멧돼지라면 빨강셔츠와 알랑쇠를 어떻게 혼내 줄까요?

☞ 이행해서 사진을 찍어 공개 게시판에 붙여 놓고, 운동장 회의나 그런...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대양신을 시켜 준다.

발표3> 「붓짱(도련님)」의 주제를 생각해 보자.

☞ 착하게 살자 (나쁜 짓을 하면 결국 나쁜 짓을 한 만큼 되돌려 받기 때문)

발표4> 「붓짱(도련님)」을 통해 작가(나쓰메 소세키)의 성격을 유추해 보자.

☞ 정의롭고 의리가 있을 것 같다. 겸손할 것 같다.

<실례 4> 개별 감상지(전면)

「도련님」을 읽고……

2 학년 11 반 21 번호 이름 박준정

◆느낀 점, 인상깊었던 장면, 내용을 통해 배운 점(교훈) 등 내 생각을 써보자.

도련님은 조금 직설적이고, 정직한 것 같다. 엉뚱한 것도 큰 것 같고 (한번), 뛰쳐나고
 남들 다 도련님을 좋아해서 싫는데 기쁜 도련님을 좋아한다. 도련님이 세심하게 하고
 기쁜 항상 '귀도련님'이라 기쁜 도련님이 느껴질 것 같다.
 도련님이 고사 피키기 시작. 내리갈 때 기쁘게 뛰어들면서 몇 주지 웃고 레미는 갈만
 해서 한 달타고. 도련님이 심할수록 더 뛰어들어 사건의 앞에서 힘들어도 되지만
 갖다치러 한 달에 한 달씩, 돈도. 도련님에게서 한 달씩. 도련님 세심하게
 모습을 왜 물려주어야 하는 그런 점에서 한 달씩. 도련님 세심하게 만들거
 꼭 만들어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 같다.
 가장 인상깊었던 것은 기쁘게 뛰어들어 사건의 앞에서 도련님이 뛰어넘었다.

◆친구가 쓴 감상문에 대해 공감 혹은 비평을 써보자. (11)번 (21)번 이름 (박준정)

더러운 세상 만들어지지 않도록 해야 되거든. 돈제어시말 이공 감동이다.
 기쁘게 뛰어들어 한 달씩. 도련님 세심하게 만들거
 일하면서 기쁘게 뛰어들어 한 달씩. 도련님 세심하게 만들거

◆친구가 쓴 감상문에 대해 공감 혹은 비평을 써보자. (11)번 (23)번 이름 (박준정)

그런 세상을 만들거 않기 위해 산다는 그 모습이 인상적이다.
 직설적이지만 정의로운 사람이라는 말이 인상적이다.

기억에 남는 문장을 써보자	1) 언제 읽 살기예요? → 기쁘게 뛰어들어.
	2) 기쁘게 뛰어들어 한 달씩. 도련님 세심하게 만들거
	3) 선뜻 줄타기 반대가. → 도련님이 멋있게.
일본문화에 대해 안 것을 써보자	1) 불교의 춤이 아주 멋있고 아름다운 것이려나.
	2) 단박과 우동이 불교 나와서 결미리는 멋 있어.
	3) 일본에도 그런 미란. 사리의 한 모습이 있다. 한 달씩. 도련님 세심하게 만들거 시코쿠는 곳에 아주 아름다운 도사 있다.

<실례 5> 개별 감상지(후면) 1



<실례 6> 개별 감상지(후면) 2



조별 감상은 작가에 대한 학습이 이루어진 후에 실시하도록 한다. <실례 2>와 <실례 3>의 조별 감상에서는 교사가 낸 물음에 대해 조별 의견을 모아보고 발표할 내용을 구분해 두었다. 'Q1'에서 'Q5'까지는 내용에 관련한 질문으로 다시 한번 줄거리를 되새겨보고 빠졌던 내용을 조별 토론을 통해 보충하도록 하였고, '발표1'에서 '발표4'까지는 감상내용을 토대로 창의적 사고를 유도하였다. <실례 4>부터 <실례 6>까지는 미리 인쇄된 양식의 개별 감상지를 한 장씩 배부하여 실시하였다. 개별 감상지는 반드시 회수하여 평가의 기초 자료로 활용한다. 조별 감상과 개별 감상을 통해 학습자의 다양한 생각을 살펴봄과 동시에 창의적 사고를 자극한다.

<실례 7> 교사용 평가지

학년	반	번호	이름	인 지 면						사 회 면		정 의 면		총 점 (10)
				내 용 이 해			문 화 알 기			토 론 태 도		청 취 태 도		
				3	2	1	3	2	1	2	1	2	1	
2	9	1	김성근											10
		2	김성복											10
		3	김준호			X			X			X		6
		4	김지수						X					9
		5	김진오							X				9
		6	김태원											10
		7	김태훈											10
		8	문태경								X			9
		9	박준호								X			10
		10	배한호						X		X			8
		11	오광진										X	9
		12	윤정후			X				X	X		X	6
		13	이용성			X			X	X	X	X	X	3
		14	전선홍											10
		15	정준희								X			9
		16	한성재						X	X	X			7
		17	감미옥											10
		18	김윤지											10
		19	김혜진											10
		20	송은정											10
		21	신미정											10
		22	이선향						X					9
		23	이윤희						X		X			8
		24	이은영											10
		25	이은정											10
		26	이현진											10
		27	임미란											10
		28	임은정											10
		29	임지혜											10
		30	정은정											10
		31	조서은											10
		32	진아영											10
		33	최민정											10
		34	최재영											10
		35	최지숙						X					9
		36	황준희											10
		37												
		38												
		39												
		40												

평가에 있어서 <내용이해>는 학습자가 할당된 자기 부분을 제대로 읽었는가와 전체 줄거리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가를 평가하는데, 평가시점은 소제목별 토론 시 각 편별로 이야기가 원만히 전개되었는지를 구성원에게 물어 평가 및 회수한 개별 감상지의 내용으로 평가한다. <문화알기>는 개별감상지의 「일본문화에 대해 안 것을 써보자」⁵⁾를 활용, 세 항목을 다 쓰되 그 내용이 문화에 속한다고 교사가 판단되었을 시에 점수를 부여한다. 이 또한 평가시점은 개별감상지 회수를 통하여 평가한다. <토론태도>와 <청취태도>의 평가시점은 매 수업 시 교실을 순회하며 평가한다. 평가기준은 소제목별 토론(2/5차시), 각 편별 토론(3/5차시) 및 조별 감상·발표(4/5차시)에서 타인의 내용을 얼마나 귀담아

듣고 의견을 내는가 혹은 태도가 산만한가로 평가한다. <실례 7>에서 내용이해에서 감점을 받은 학생은 문화알기, 토론태도 및 청취태도에서도 감점을 받고 있다. 그리고, 비교적 낮은 점수를 얻은 학생들은 평소의 수업태도 또한 산만한 학생들이다.

2.2.3. 문화 학습

교과서와 연계선 상에 있지 않은 문화를 학습하기에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기에 굳이 일본 문화에 있어서는 교과서와 연계하지 않는 학습 방법을 취했다.

2.3. 문학수업의 평가

5차시의 수업을 마친 후 <문학 수업의 효용성>에 대한 설문을 실시하였다.

「붓짱(坊っちゃん)」에 대한 학습자의 독서수준을 설문한 결과 약 25%(약 39명)가 ‘쉽게 읽었다’고 답하였으며, 약 33%(약 51명)가 ‘자신의 독서수준에 비해 내용이 어려웠다’고 답하였다. 평소 학습자들의 독서량이 저조함을 감안할 때 좀더 쉬운 번역본을 선택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문학수업에 흥미를 보인 학생이 약 26%(약 41명), ‘흥미가 없었다’는 학생이 약 36%(약 57명)이었다. 이는 1차시에서 동기부여의 불충분과 학습자 각자의 역할의 중요성에 대한 불인식 및 불성실한 수업태도로 인하여 앞으로 전개된 수업에 흥미를 가져오지 못한 것으로 분석된다. 즉, 설문 7번⁶⁾과 8번⁷⁾ 조사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자기 몫의 부분을 읽어오지 않아 내용의 연결이 원만하지 못했다’와 ‘자기 몫을 읽어오지 않은 우리들의 태도개선’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겠다. 앞으로 「붓짱(坊っちゃん)」 외에 다른 일본 문학 작품을 읽을 의향에 대해 물은 결과 약 45%(약 75명)가 ‘읽겠다’고 답해 일단 이번 문학수업이 학습자로 하여금 일본 문학 작품에 한 발 다가서게 한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하였다. 기타 의견으로는 5차시로는 빠듯하여 좀더 시간적 여유를 갖고 읽고 싶다는 의견과 읽어오지 않은 학생(참여하지 않는 학생)들에 대한 조치가 미흡했다 등이 있었다. 아울러 모둠별 학습보다는 개별학습 또는 교사의 강의식 학습을 바랐으며, 개별 읽는 분량이 적어 한 사람씩 전체를 다 읽는 방식을 선호했다.

다음은 <중간고사 문항>과 학생들의 정답카드를 기초로 한 그래프이다.

<25번~28번: 각3점> 본문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나는 어렸을 때부터 천성적으로 타고난 덩벙거리는 기질 때문에 실수만 해 왔다.
 (나) 이 할머미 무슨 까닭인지, 나를 끔직이 귀여워해 주었다.
 (다) 검은 얼굴에 등성등성 수염이 나 있었으며 커다란 눈에 마치 너구리같은 인상의 사나이였다.
 (라) 나중에 들으니 이 남자는 일년 내내 빨간색 셔츠를 입는다고 했다.
 (마) 이런 밍글없는 자가 에돗코(동경토박이)라면, 도쿄에서 태어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절실히 들었다.
 (바) 그는 건장한 체격에 뺨뺨머리를 하고 있어 못된 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낫짱의 소유자였다.
 (사) 이름이 고가라고 하는 영어 선생인데 안색이 상당히 좋지 않은 인물이었다.
 (아) 한번 고가씨에게 시집가기로 약속해 놓고, 교감 선생님이 오셨다고 그쪽으로 마음을 돌리다니

25. 등장인물 또는 그 별명의 연결이 바르지 **않은** 것은?

(가)-도련님	(나)-하녀<기요>	(다)-교감	(라)-빨강셔츠
(마)-알랑쇠	(바)-멧돼지	(사)-끝물호박	(아)-마돈나

- ① 가나 ② **다** ③ 라마바 ④ 바사 ⑤ 아

26. 위 작품에서 나오지 **않는** 사건은?

- ① 골동품 강매 ② 멧돼지 사지하다 ③ **빨강셔츠와의 화해**
 ④ 메뚜기 사건 ⑤ 끝물 선생의 전근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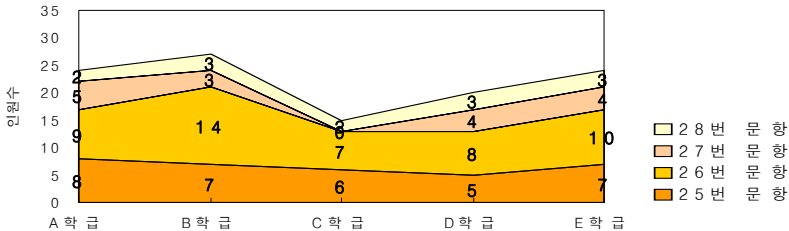
27. 위 작품의 제목은?

- ① 미란 ② 설국 ③ 개인적 체험
 ④ 상실의 시대 ⑤ **도련님**

28. 위 작품의 작가는?

- ① 무라카와 슌지마라 ② 가와바타 야스나리 ③ 오에 겐자부로
 ④ 무라카미 하루키 ⑤ **나쓰메 소세키**

< 학 급 별 * 문 항 별 오 류 분 포 도 >



중간고사 25번과 26번 문항은 내용학습에 대한 확인이고, 27번과 28번 문항은 작품과 작가에 대해 확인하는 문제로 구성하였다. 각 문항의 정·오답지를 분석한 결과 27번과 28번 문항은 오답자가 한 학급당 3~4명 정도로 비교적 낮은 반면, 대부분의 오답자가 25번과 26번 문항에 치우쳐 있다. 이것은 충분한 학습이 이루어지지 못함을 반영하는데 그 원인으로는 동기부여의 불충분으로 인한 학습의욕 저조와 학습자가 자기 역할에 충실하지 못한 불성실한 학습태도에서 찾을 수 있겠다. 또한, 학급에 따라 남녀 성비, 면학분위기, 학과별 학업성취도 수준 및 특수학급 학생 포함 여부 등 변수가 많이 작용한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이겠다. 그리고 학습자들이 좀더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교사의 노력도 필요하겠다.

3. 마치면서

본 연구에서는 문학수업의 실험대상을 진학을 목표로 하지 않는 실업계 학생으로 함으로써 인문계 학생에 비해 다소 학습의욕 및 능력이 떨어짐을 감안할 때 학습효과의 기대치는 낮아질 수밖에 없었다.

차시별 문제점을 간단히 지적하면, 1차시에서 단순히 교재 소개 및 나쓰메 소세키(夏目漱石)의 사진과 설명에 그쳐 충분한 동기부여가 되지 못하였고, 2·3차시의 각자의 내용을 전달하는 순서에서는 정해진 시간 안에 방대한 내용을 설명하기에 다소 역부족이었다.

문학수업 방법상에 있어서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버즈학습 형태에 있어 각자가 처음부터 읽지 않은 탓에 내용이 충분히 전달되지 못하였으며, 내용전개(이야기 하는데)에 있어 혼란스러워 했다. 또한 지그소우학습 형태에 있어 나중에 구성될 「버즈 조」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나, 우선 친한 친구들과끼리 모이는 습성으로 인해 나중에 구성된 버즈 조의 조별 협동이 이루어지지 않는 현상이 나타났다.

둘째, 일본문화 이해에 있어 현대의 일본문화가 아니다.

이번 문학수업을 통해 얻은 가장 큰 수확은 학습자가 일본문학 작품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계기를 마련한 것과 문학수업의 가능성을 확인했다는 것이다. 교사의 직접적인 문화

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학습자들은 문학 작품을 통해 일본의 생활문화, 예를 들면, 일본 의상(着物, 浴衣, ふんどし 등), 음식 문화(てんぷらそば, すき야키 등), 주거 문화(床の間, 畳 등), 온천, 지리 등을 알았다.

버즈학습과 지그소우학습 형태로 진행된 수업 방식에 대해서는 기존의 교사중심의 강의식 일괄학습을 탈피한 학습자 중심의 수업으로 활발한 면학분위기 조성, 협동심 유발, 원만한 대인관계 형성에도 크게 기여하리라 본다. 그러나 협동과 토론에 능한 학생이 있는 반면, 소극적인 학생도 있으므로 학습 대상에 따라 모둠별 수업과 개별 수업의 장단점을 적절히 조화시킬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단순히 읽고 쓰는 차원이 아니라 학습자 자신들의 언어로 바꾸어 이야기하는 방식이므로 학습의 효과는 훨씬 오랫동안 유지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학습의 촉진을 위해 ‘평가’라는 자극물은 필요한데, 그 평가 방법으로는 본 연구에서 활용한 방법 외에도 촌극(寸劇), 코스튬 플레이(costume play) 등 다양하다. 그리고, 보조 교재(시청각 자료-비디오, 동영상, 컴퓨터 등)를 활용하여 학습자의 이해를 돕는다면 학습의 효과는 더욱 클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의 회화중심의 수업에 문학수업을 병행한다면 보다 효율적인 외국어 학습이 될 것이다.

【注】

- 1) 인터넷 교보문고, 도련님(문예출판사, 오유리 역) 출판사 서평 중
- 2) <실례 4> 개별감상지 참조
- 3) 버즈(buss)학습이란, 벌이 왕왕거리는 것과 같이 수명의 학생들이 그룹을 만들어서 외글와글 의견을 교환하며 주체적으로 학습하는 집단학습 방법을 뜻한다.
- 4) 지그소우(jigsaw)학습이란, 협력학습에 의한 수업방법으로서 일종의 그룹활동이며 이동 상호간에 가르치고 배우는 상호의존적인 소집단학습이다. 학생은 그룹 안의 다른 학생과 서로 중복되지 않도록 분할된 교재로 학습하고, 그것을 가지고 모여서 하나의 통합된 교재를 배우게 된다.
- 5) <실례 4> 개별감상지 참조
- 6) 7. 「봇짱」 문학 수업을 통틀어 불만스러웠던 점이 있었다면 무엇입니까?
- 7) 8. 「봇짱」 문학 수업에 있어서 개선 및 요구사항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參 考 文 獻

- 권혁진 『일본근대 소설연구-나쓰메 소세키를 중심으로-』(학사원, 1996)
김대행 외 『국어교육연구소연구총서18 문학교육원론』(서울대학교출판부, 2000),

- 김성한, 곽하신 역 『을유 라이브러리23 도련님/일야(一夜)』((주)을유문화사, 1994)
- 나쓰메 소세키 『도련님(坊っちゃん, 붓짱)』(도서출판 인디북, 2002)
- 夏目漱石 『坊っちゃん』(新潮社, 昭和25)
- 夏目漱石 『坊っちゃん』(講談社, 1983)
- 이현기 외 2인 『고등학교 日本語 I』((주)진명출판사, 2002)
- 조영석 『일본연구총서8 나쓰메 소세키(夏目漱石)의 문학세계』(보고사, 2001)
- 한국문학교육학회 『문학교육의 새로운 구도와 실천』(태학사, 2000)
- 김선정 「단편소설을 활용한 일본문학교육의 방법연구」(신라대학교 교육대학원교육학석사학위논문, 2002)
- 金允伊 「夏目漱石의 文明批判 考察」(全北大學校 教育大學院碩士學位論文, 1999)
- 玉先永 「日本文學教育に於ける教材研究 (芥川の短編小説 『鼻』を中心に)」(祥明大學校 教育大學院, 碩士學位請求論文)
- 韓洪錫 「日本の 文學感想教育 一考察-‘小學校’教育課程을 中心으로-」(韓國外國語大學校 教育大學院教 育學碩士學位論文, 1999)

고등학교 일본어교육에 있어서의 문학수업 방법론 연구

이 경 옥

본 연구의 목적은 나쓰메 소세키(夏目漱石)의 「봇짱(坊っちゃん)」의 문학수업 실례(實例)를 통해 현재 고등학교의 일본어 수업시간에 활용할 수 있는 문학교육 방안을 제시하고, 궁극적으로는 일본에 관한 관심을 고취시키며 이문화(異文化)를 이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

문학작품을 통해 외국어 학습을 하면 상황과 아울러 언어를 익히게 됨으로써 단순히 암기하는 것 보다 훨씬 다양한 어휘와 용법을 확대할 수 있는 언어기술을 갖출 수 있고, 고등학교 일본어 교사들도 문학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일본어 교육 연구자는 문학수업을 위한 교재의 연구와 개발에 힘쓸 필요가 있겠다. 이에 나쓰메 소세키(夏目漱石)의 「봇짱」을 통해 문학수업의 구체적 방안을 제시한다.

먼저, 「봇짱」은 성장소설이며 대중성, 문학성, 오락성을 가지고 있어 학습자의 발달특성에도 부합될 뿐만 아니라 흥미로운 소재이므로 선정하게 되었다. 내용학습은 1차시: 조편성 및 소재목별 정독 → 2차시: 소재목별 내용을 구성원에게 이야기 및 한 편의 내용 완성 → 3차시: 지그소우 학습 형태로 조(組)재구성 및 각 편의 내용을 이야기하여 전체 내용 완성 → 4차시: 작가에 대한 학습과 전체 내용에 대한 조별 토론 및 발표 → 5차시: 개별 감상문 쓰기 및 동료의 의견 들어보기의 순서로 진행한다. 모둠별 학습방법은 먼저 소재목별 조(組)로 구성하여 각 구성원이 한 개씩의 소재목을 읽고 조 구성원에게 내용을 들려주고, 다시 지그소우학습 형태로 조(組)를 재편성하여 1편부터 6편까지 감상하는 방법을 취했다. 감상발표는 조별토론 감상과 개인별로 감상문을 쓰는 두 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5차시의 문학수업 결과, 시간부족으로 인한 충분한 동기부여와 감상시간의 미확보, 모둠별 학습에 미숙, 실업계 학생 대상의 문제점 등이 나타났다. 그리고 <문학수업의 효용성>에 대한 설문결과 불만 및 개선사항을 ‘자기 몫의 부분을 읽어오지 않은 우리들의 태

도개선'에서 찾았으며, 이번 문학수업을 통해 학습자로 하여금 일본문학에 대한 관심을 고취시키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앞으로의 문학수업은 정해진 학습 진도에 크게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충분한 시간확보가 우선되어야 하고, 강의식 학습과 개별 학습의 잇점을 최대한 살려 학습자가 충분히 작품을 감상할 수 있도록 해야 하겠다.